

 미래창조과학부 http://www.msip.go.kr		보 도 자 료		 대한민국 재도약의 힘, 창조경제	
보도일시	2016. 3. 16.(수) 조간(온라인 3. 15. 1200)부터 보도해 주시기 바랍니다.				
배포일시	2016. 3. 15.(화) 9:00	담당부서	성과평가혁신총괄과		
담당과장	허재용 과장 (02-2110-2710)	담당자	조시훈 사무관 (02-2110-2713)		

“질적 성과 중심의 자율적인 평가체계 정착으로 연구혁신 유도”

- 2017년 국가연구개발 성과평가 실시계획 마련 -

- 국가연구개발 평가에서 단순 논문건수의 성과지표 반영을 원칙적으로 폐지하고 부처의 자율성 및 책임성을 강화하는 평가체제로 전면 전환한다.
 - 연구기관 평가는 기관 특성을 반영한 자율 컨설팅 도입 및 핵심성과 위주의 평가를 통해 기관의 평가부담은 낮추고 연구 몰입도는 높여 나간다.
- 미래창조과학부(장관 최양희, 이하 미래부)는 2017년도 국가연구개발 사업 및 기관평가 추진과 관련하여 평가대상·기준·방법 등 세부사항을 제시한 「2017년 국가연구개발 성과평가 실시계획」을 3월 11일 국가과학기술심의회 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하였다.

< 2017년 국가연구개발 성과평가 실시계획 수립 배경 >

- ◆ 수립 근거 : “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성과평가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세부 평가대상 및 일정을 포함한 연구개발 성과평가 실시계획을 마련하여야 한다.” (국가연구개발 성과평가 및 성과관리의 관한 법률 제5조제2항)
- ◆ 추진경과 : 제3차 국가연구개발 성과평가 기본계획('16~'20) 수립('15. 3. 24)
2017년 성과평가 실시계획(안) 관계부처 의견수렴('16. 2. 18 ~ 26)
실시계획(안) 국가과학기술심의회 평가전문위원회 검토('16. 2. 29)

- 2017년 실시계획은 연구자 중심의 평가추진, 질 중심의 평가강화, 평가의 자율성 확대, 정책·투자·예산과의 연계 등 「제3차 국가연구개발 성과평가 기본계획('16~'20)」의 주요 내용과 연구현장 의견 등을 반영하여, “평가의 자율성·실효성을 확보하고 연구성과 확산기반을 마련”하는데 중점을 두고 아래와 같이 추진할 계획이다.

① 창·도전적인 연구환경 조성을 위한 질적 성과 중심의 평가체계 착근 및 평가의 실효성 확보

평가부문	현 행	2017년 실시계획
사업평가 (중간평가)	질적 성과 중심의 평가 체계 연구현장 착근 필요*	과제단위에서 단순 논문건수 지표 원칙적 폐지 및 자체평가에서 “질 중심의 과제관리” 항목 신설
사업평가 (종료·추적 평가)	- 평가를 통한 성과 관리 실적 점검 - 후속성과 발생에 대한 과거 데이터 확보	- 성과활용·확산계획 상향 (20→30점) 조정 등 평가 실효성 강화 - 이전 평가(중간·특정·종료) 결과 반영 등 평가간 연계 강화
기관평가 (종합평가)	기관 경영성과계획서에서 성과목표별 3~10개 지표 설정	기관 특성·임무를 반영한 핵심 성과지표 위주로 3개 이내 설정

* '15년에 이미 사업평가 시 단순SCI 건수지표 활용률은 0%를 달성하고 기관평가 시 단순 논문건수 지표 전면폐지를 추진하였으나, 과제를 수행하는 연구자 입장에서의 체감강화 필요

② 부처·기관의 자율성을 존중하는 자체평가 중심의 평가체제로 전환

평가부문	현 행	2017년 실시계획
성과목표·지표점검	미래부 주관으로 부처 성과 목표·지표 적절성 점검	부처별 자체적인 점검을 통한 자율성 및 책임성 강화
사업평가 (중간평가)	자체평가 결과에 대한 미래부 주관 재평가 중심	자체평가 역량강화 지원 중심 (R&D부처 및 연구현장 간 소통강화 등)
기관평가 (중간컨설팅)	미래부 주관 중간컨설팅 평가 실시	별도의 평가 없이 기관 자체적으로 중간컨설팅 및 자율 성과점검 실시

③ 정책·예산과의 연계 강화 및 평가 투명성 제고

평가부문	현행	2017년 실시계획
사업평가 (특정평가)	· 개별사업 중심 평가 실시	· 정부 R&D 정책·기술분야 등 사업군 대상 확대를 통해 정책·예산 연계 강화
기관평가 (종합평가)	· 평가결과를 기관 예산 및 성과연봉과 연계 · NTIS 등 여러 시스템에 분산된 평가자료 활용	· 예산·성과연봉 외에 기관 임무조정 및 우수 연구원 지원 유도 등 연계 강화 · 중간점검 및 종합평가시 '성과평가 정보 공개서비스' 활용 온라인평가 강화

□ 미래부 박필환 성과평가혁신관은 “2017년 실시계획 마련을 통해 「제3차 국가연구개발 성과평가 기본계획」 및 「정부R&D 혁신방안」을 보다 구체화하여,

- 질 중심 성과평가의 현장착근 및 자체평가 중심의 자율적인 평가체계 전환의 조속한 정착으로 연구자들이 본연의 임무에 집중하여 우수성과를 지속적으로 창출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나갈 계획” 이라고 강조하였다.

붙임 : 평가부문별 2017년 주요 추진사항



이 자료에 대하여 더욱 자세한 내용을 원하시면
미래창조과학부 조시훈 사무관(☎ 02-2110-2713)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.

붙임

평가부문별 2017년 주요 추진사항

□ 「국가연구개발 사업평가」 부문 주요 내용

- (성과목표·지표 점검) 부처별 자체적인 성과목표·지표 점검을 통한 자율성 및 책임성 강화
 - ※ '16년부터 부처 자체점검(세부 성과지표 및 측정산식의 타당성 등) 후 미래부 적정성 점검(부처 자체점검 결과)
- (중간평가) 부처 자율성을 존중하는 자체평가 중심의 평가체계로 전면 전환하고, 연구자 역량중심 평가* 및 질 중심의 과제관리** 등을 부처 자체평가에서 필수 점검요소로 도입
 - * 자체평가 '관리' 항목(사업관리의 적절성)에 “연구자 중심의 사업운영” 및 “질 중심의 과제관리” 항목 신설
 - ** SCI 단순 논문건수 지표는 원칙적으로 폐지, 질적성과 중심의 지표 설정
- (종료·추적평가) 전주기 국가R&D 사업평가(중간-종료-추적) 간 연계 강화를 통해 평가 실효성을 확보하고 연구성과 확산기반을 마련
 - ※ 종료사업 평가시 각종 평가이력 반영, 성과활용·확산계획 평가배점 확대 등
- (특정평가) 정부R&D 정책 및 기술분야, 출연(연) 기관사업 등을 중심으로 평가대상 사업군*을 선정하여 정책·예산과의 연계를 강화
 - * 과학기술기본계획의 정책분야(미래 성장동력 확충)와 정부R&D 투자방향의 기술분야, 과학기술분야 출연(연) 기관임무 유형 등을 고려한 사업군 선정

□ 「과학기술 정부출연 연구기관 평가」 부문 주요 내용

- '제3차 국가연구개발 성과평가 기본계획('16~'20)'에 따라 연구기관의 특성을 반영한 '기관자율 컨설팅' 실시로 평가부담을 완화
 - ※ ('16년) 중간컨설팅평가에서 '경영공통' 평가 실시 → ('17년) 별도의 평가 없이 중간 컨설팅 및 기관 자율 성과점검 실시
- 기관을 대표하는 핵심성과 위주의 평가*와 목표의 창의·도전성 수준 및 달성 과정·노력 등을 고려한 평가 확대로 연구혁신을 유도
 - * 성과목표별 지표 수: ('16년) 3 ~ 10개 내외 → ('17년) 3개 이내로 제한
- 평가결과에 대해 연구기관의 책임성을 강화하고 우수 연구원에 대한 육성지원 체계를 마련
 - ※ ('16년) 평가결과를 기관 예산 및 성과연봉에 연계·환류 → ('17년) 평가결과가 극히 불량한 기관은 기관장 성과연봉 미지급 및 기관 임무기능 조정, 우수 연구자의 경우 연구기관 차원의 지원체계를 경영성과계획서에 필수 반영
- 기관 중간실적 점검이나 종합평가를 실시할 때 '성과평가 정보공개 서비스*'를 활용하여 온라인 평가기반을 강화
 - * 온라인 중간성과 점검 및 종합평가 주요 자료로 활용, 평가위원 풀 및 평가이력 관리도 병행